

농촌가정생활의 질 진단을 위한 일 연구

A Study on the Measurement of the 『Quality of Life』 of Korean Farm Household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농가정학과

교수: 최 은 숙

Dept. of Home Managem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 Eun Sook Choi

동국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

박사과정: 김 인 숙

Dept. of Home Economics

Dongkuk University

Ph.D. Course : In Sook Kim

목 차

I. 서 론

1. 문제의 제기

2. 조사의 목적

II. 이론적 배경

III. 측정자료 및 방법

IV.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 농가의 일반적 특성

2. 조사대상가정의 질적생활수준

1) 대상가정의 객관적 생활상태

2) 대상가정의 주관적 만족도

3) 객관적 생활상태와 주관적 만족도와의 관계

V. 결 론

참고문헌

= ABSTRACT =

This study was carried out in an attempt to establish a preliminary scale for measuring 『Quality of Life』 and to measure the 『Quality of Life』 of Korean farm households. Data from randomly selected 318 farm households throughout the country were analysed.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

1) The objective levels of living conditions were relatively low in dietary life, health & sanitation, and financial stability and were relatively high in family relationship, household work and housing environment.

2) The subjective satisfaction level was lowest in leisure and were relatively high in family relationship and health & sanitation.

3) A comparison of objective level of living conditions and subjective satisfaction level suggested the scores of the latter were higher than the former in dietary life and health

& sanitation. In the contrary to this, the scores of the former were higher than the latter in housing environment, household work, child education, leisure and family relationship. In particular, the scores of the subjective satisfaction level were much higher in housing environment and household work.

I. 서 론

1. 문제의 제기

우리나라는 지난 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에 힘입어 국민생활에 있어서 물질적인 번영을 이루었다.

그 결과 국민 1인당 GNP가 4,968 \$('89), 총 수출액이 623억 \$('89)을 넘는 등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우리나라에서도 선진공업국들이 이미 그러했듯이 "생활의 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고, Galbrath의 '경제성장의 양부(良否)는 얼마나 생산하는가에 있지 않고 우리의 생활을 충족시키거나 즐겁게 하는데 얼마나 기여하는가에 의존한다'는 말에서처럼 물질적 지표로서의 GNP가 갖는 한계성을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GNP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1970년대 이후부터 국가발전 내지는 사회발전의 척도 개발에 많은 사회과학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런데 인간은 특정한 가치체계를 형성하고 있고 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제반의 의지적인 노력 혹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물질적 성취는 이러한 가치체계의 부분적 관심사이거나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노력 혹은 행동의 결과를 평가할 때 전반적인 가치체계의 성취정도를 해석하기 위한 생활의 질적인 측면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역설되며, 이의 평가기준으로서 '생활의 질'이라는 함축적인 용어가 도입된다.

이러한 생활의 질에 대한 관심은 새로운 국가 지표로서, 경제활동의 최종목표로서, 행동의 최대 과제로서, 지역개발이나 복지상태의 평가기준으로서 점차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하겠다.

한편 우리 농촌도 국가 전반적인 경제성장장과 새마을운동 등에 힘입어 급격한 생활수준의 향상

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물질과 정신, 몸과 마음의 두 측면을 고르게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표상하는 가치를 발전이라고 볼 때, 한국 농촌의 발전정도 및 농가의 복지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농가의 '생활의 질' 상태를 지수화함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농가의 생활의 질의 측정을 위한 지표개발의 한 시도로써 최은숙(1981), 한경혜(1980) 등이 이미 행한 바 있는 기초연구에서 제시된 농가 생활의 질 측정지표를 바탕으로 하여 농가 생활의 질 진단을 시도하여 보고자 한다.

2. 조사의 목적

이상과 같은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본 연구는 1981년에 실험적으로 책정한 바 있는 농가 질적 생활진단지표를 기초로 하여 농가의 전반적인 생활실태를 가정생활의 각 영역별로 진단하기 위하여 실시되었으며, 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농가의 전반적인 생활실태를 가정생활의 각 영역별로 진단하여 본다.
- 2) 농가생활의 질 측정을 위한 시험적 진단지표를 책정하여 본다.
- 3) 농가의 질적 생활수준과 대상가정의 배경과의 관계를 고찰해 본다.

II. 이론적 배경

생활의 질은 종래의 생활수준에 대한 척도로써 사용되던 GNP가 진정한 인간의 생활상태를 설명함에 있어서 불완전하다는 인식이 재고됨에 따라 새로이 대두되기 시작한 개념이다. 이제는 국가 및 지역개발 정책논의에서 복지(Welfare)나 행복(Happiness)이라는 용어에 거의 대체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개념(현오석, 1976)은 Ben(1975)의

『생활의 질』은 오래된 개념에 대한 새로운 명칭 (~ is a new name for an old notion)일 뿐이다”라는 설명처럼 그 용어가 새로울 뿐 개념상 생소한 것이 아니다.

인간의 궁극적 가치목표는 삶의 가치(Value of Life)에 있고 인간이 보다 행복된 삶을 향유하기를 희구하는 것으로 사료되며(김경동, 1978)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의 질적 생활은 『삶의 가치』 실현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흔히 생활의 질은 『행복된 삶』으로 일컬어지며 인간의 삶이 ‘좋은’ 상태 혹은 ‘바람직한’ 상태를 뜻한다. 따라서 ‘질적생활’이란 하나의 일반개념으로서 ‘잘 사는 것’이라 표현할 수 있겠다. 그러면 과연 ‘잘 산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며, ‘행복된 삶’ 혹은 ‘좋은 삶’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가? 또한 그 기준을 어디에서 찾을 것이며 이를 정립하는 방법론적인 바탕은 무엇인가?(김경동, 1976)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사실 행복한 삶의 뜻은 매우 주관적이고 문화적으로 규정된 것이라는 점을 고찰한다면 이상의 논의는 거의 쓸모가 없거나 적어도 불가능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점을 지적하였는데, Ben(1975)은 생활의 질에 대한 개념은 사람수 만큼이나 많다고 하여 이 개념이 개개인이 속한 문화와 시간, 성별, 연령, 사회계층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표현하였으며, 1972년 환경보존기구(Environmental Projection Agency)의 후원에 의해 개최된 『생활의 질에 대한 회의』(Conference on the Quality of Life)에서도 생활의 질은 고도로 개인적이어서 어떤 일정 집단에 있어서의 『생활의 질』 개념을 서술하려는 시도는 필연적으로 실패할 것이라는 주장이 발표되었다. 실제로 최근 많은 사회과학자들-사회학자, 경제학자, 심리학자, 환경학자, 가정학자-이 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론적 접근을 모색하며 그 개념을 정의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과연 무엇인가에 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생활의 질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는 것은 학문분야에 따른 관점과 접근방법이

다양함을 그 한 이유로 생각할 수 있으나 또 하나는 개념규정에 필연적으로 개재되는 개인적인 가치 판단의 문제를 들 수 있겠다. 『생활의 질』의 개념정의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이것으로, 개념을 명확히 설정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사회적 가치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이 강조되며(Wallace, 1974) 이를 위해 개념정의에 도입된 요소들에 관한 비교연구도 이루어졌다(Hornback & Shaw, 1972; Ben, 1975).

Cantrill(1965)은 이 부분에 선구적인 역할을 하여 좋은 삶(good life)을 구성하는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 여러 차례 조사를 행한 바 있다. 1965년에 미국민을 대상으로 행해진 그의 조사결과를 보면 ① 자기 자신의 건강 ② 적절한 생활수준을 ①, ② 위로, 그외 자녀, 주거, 행복한 가족 등을 거론하고 있으며, Rolls와의 공동연구(1973)에서도 미국민들이 개인적인 희망으로 ① 자신의 건강 ② 생활수준의 향상 ③ 자녀를 위한 열망의 성취 ④ 행복한 가정생활 ⑤ 가정의 건강 ⑥ 마음의 평안 ⑦ 보다 나은 집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이 파악되었다.

M. Roakeach(1973; 김경동, 1979)는 인생의 궁극적 가치(Terminal Value)로서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 가족의 안녕, 선택과 독립의 자유 등 8개 항목을 지적하고 있으며, Reeder(1971)는 질적생활의 근저를 이루는 명백한 가치개념은 여론조사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 하여 최고의 개인적 관심사항이 건강으로 나타난 Gallop의 여론조사 결과를 예로 들었다.

이상의 논술과는 달리 『생활의 질』 개념정의를 위한 가치개념으로서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그 논리의 출발점으로 삼을 것을 시사하고 있는 연구들도 있다. 이 분야에 있어 희소한 경험적 연구를 행한 E. Allardt(1973)는 그 개념적 틀을 Maslow의 Basic need theory에서 출발시켰으며, Jan Drewnowski(1970)도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기초로 그의 논리를 전개하였고, 김경동(1979) 역시 Maslow의 욕구이론이 하나의 시작으로 도움이 될 것임을 지적하였다.

이상과 같이 『생활의 질』 개념정의에 있어서 그

기본을 이룰 세계적으로 공인된 단일적인 가치체계나 사회복지 함수는 부재하는 것으로, 따라서 명확하게 『생활의 질』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 현실적인 과제로 남겨져 있는 것이다.

가치체계 뿐만이 아니라 『생활의 질』에 대한 개념정의의 방법에서도 다양한 양상을 갖는 바 일반적으로 다음의 3가지 방식이 사용된다(Livingstone). 첫째, 『생활의 질』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들, 즉 행복, 만족, 부 등에 대한 정의를 내리거나, 둘째, 사회지표를 이용하여 정의하거나, 셋째, 사회지표와는 상이한 지수(index)에 의한 일련의 사회, 경제, 환경지표를 이용하여 『생활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나 성분을 특정화함으로써 간접적인 정의를 내리고자 하는 방식이다.

이와같이 『생활의 질』이란 추상적인 용어의 개념정의를 위한 접근방법에서부터 이견이 대립되어 어떤 이들은 이것을 주로 개인들의 주관적인 마음의 상태를 뜻한다고 하여 “행복” “복지” “자아완성” “이성” “목적적” “교육받은 상태” “만족스러운 상태” 등의 말로써 부분적인 설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이에 반해 보다 객관적인 삶의 조건에 비추어 “자연환경” “생활환경” “수입” “경제적 안정” “교육과 훈련” “문화” “개인의주의” 등의 지표를 이용하여 『생활의 질』이란 용어의 조작적 정의의 가능성을 강조하는 학자들이 있다(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1978 ; 김경동, 1979)

그 중 대표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Ben(1975)은 『생활의 질은 인간의 안녕(well-being)과 거주하는 환경에 대한 주관적 명칭』이라고 하였으며, 또 개개인에 있어 누구에게도 획득되고, 충족된 후에는 개인을 행복하게 혹은 만족되게 하는 일련의 욕구(wants)를 표현한다고 정의하였다.

다음으로 Norman(1968)은 『생활의 질』은 그말 자체가 하나의 범주를 함축하고 있는데, “복지”나 “행복”과 거의 같은 개념이나 “행복”보다는 덜 감상적이고 “복지” 보다는 덜 진부화된 용어라고 하였으며, L. Coleman(1975)은 인간의 행복과 안락, 만족, 그리고 일반화된 생활수준의 정도를 나타낸다고 정의하였다.

한편 R.D. James(1972)는 물질적, 비물질적 성취에 대한 만족감이나 행복감이라고 하여 주관적인 면을 강조하였고, Harland(1972)는 보다 객관적인 면에 치중하여 ①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건강상태 ② 모든 연령의 아동에게 교육제도의 시행 ③ 시민적 권리와 법적 정의 ④ 심리적, 사회적 차원에서 적절한 주거 ⑤ 여가시간의 즐길 ⑥ 건강한 가족기능의 충족 ⑦ 변화하는 시대에 적용할 지식과 자원 ⑧ 변화에 적용할 동등한 기회 등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사회학자 김경동(1979)은 『생활의 질』이 물질적, 경제적, 신체적인 면과 정신적, 경제외적, 심리적면에서의 평안하고 풍요하며, 건강한 삶으로 표상된다고 하였으며, 『생활의 질』의 향상이란 외적인 조건과 내적인 만족의 향상을 뜻한다고 하였다. 김해동(1976) 역시 그의 『한국 농촌생활지수연구』에서 한국적인 『생활의 질』 지표의 개발을 시도하면서 “잘 산다”는 용어를 도입하여 한국 농촌생활의 질적인 수준을 측정하였다. 그는 “잘 산다”는 영어의 well-being과 마찬가지로 뜻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는 ① 인간의 생리적, 심리적 안녕과 ② 안녕을 위한 객관적 제조조건(생활조건)의 양면에서 고찰될 수 있다고 하여 『생활의 질』이 객관적인 면을 함께 포함하는 개념임을 시사하였다.

한편 가정학 분야에서도 도시가정의 『생활의 질』에 관련된 연구들이 발표된 바 있는데(문숙재, 소연경, 1983 ; 이기영, 1984a, b ; 이정수, 고경애, 1985 ; 문숙재, 정은숙, 1985 ; 박인숙, 1986 ; 한경미, 황덕순, 1990), 이상의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견해를 종합해 보면 『생활의 질』에 대한 통일되고 확정된 개념정의를 내려져 있지 않음을 알 수 있겠으나, 한편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의 다양한 해석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가장 일반적인 수준에서 말하는 “물질적 객관적인 삶의 질”과 “정신적 주관적인 삶의 질”로 규정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생활의 질』은 인간의 객관적, 환경적 생활조건과 이러한 생활조건과 주관적 가치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의적 평가로서의

주관적, 심리적 만족을 동시에 포함하는 개념으로 설명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농가의 생활의 질 수준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그 개념을 『인간의 바람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하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객관적 생활조건과 이에 대한 정의적 평가로서의 주관적 심리적 만족』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조작가능성을 경험적으로 분석하여 보고자 하였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척도를 구성, 이용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여러 연구에서(Jan Drewnowski, 1970; Ben, 1975; 山本松代, 1974; Wallace, 1974; D.A. Evans, 1977; OECD, 1973 등) 제시된 척도의 구성요소들이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질적생활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여러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여 이것을 문화적 지역적 차이를 초월하여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생활의 질』의 구성요소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생활의 질』 측정을 위한 척도는 ① 식생활(영양) ② 보건위생(건강) ③ 주거환경 ④ 가사노동 ⑤ 자녀교육 ⑥ 경제생활 ⑦ 여가생활 ⑧ 가족관계의 8개 영역을 구성요소로 하였다.

그런데 『생활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어느 것이 바람직한 삶을 실현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는가 하는 문제가 야기되어 상대적인 중요성, 즉 척도의 가중화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명백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해 줄 체계화된 이론이 없으며, 이를 다룬 연구도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어서(山本松代, 1974) 본 연구에서도 구성요소 간에 가중치를 설정하지 않고 그 필요성에 대한 언급으로 한정됨을 명백히 하며 차후 이 분야에서의 연구의 진행과 함께 해결되

어야 할 과제로 제시하는 바이다.

더우기 농촌지역의 『생활의 질』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는 김동일 등(김동일의, 1982; 김해동 1976; 최경구, 1978; 최은숙, 1981; 한경혜, 1980)의 연구 외에는 거의 없고, 최근 왕인근(1990)은 농촌지역에서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모임에 제출한 자료에서 농촌지역의 『생활의 질』의 개념과 구성요소는 도시지역에 비해 복잡하고 다양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결론 짓고 있는 바, 농촌지역 가정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확립을 위한 시도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다.

III. 측정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 이용한 측정도구로는 '81년 최은숙의 '농가 질적생활진단을 위한 지표의 책정 조사연구'에서 시험적으로 구성된 농가생활진단 지표와 '74년 일본 정부에서 실시한 '농산어가 생활수준 조사'에서 사용한 조사표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이루어진 생활의 질 측정을 위한 관련연구를 참고하고 생활의 질 척도의 구성요소별로 관련 전문가 및 농촌지도사업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지표의 구성내용을 결정하였으며, 크게 다음의 3가지¹⁾, 즉 일반사항, 객관적 생활상태 조사척도와 주관적 만족도척도로 구성하였다.

그리하여 8개도 33개 마을의 농가주부²⁾ 400명을 대상으로 1986년 9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연구자로부터 조사요령에 대한 사전교육을 받은 조사자에 의한 면접조사와 우편조사를 병행, 실시하였는데, 실제 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381부였다.

회수된 자료는 농촌진흥청 전산실에서 AGRISP Package를 이용, 빈도, 백분비, 평균, 상관분석, F-

주 1) 가] 일반사항 : 모두 7문항으로 가족상황과 가정상황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

나] 객관적 생활상태조사 척도 : 가정생활을 크게 8개 영역으로 나누어 총 30문항에서 각 문항별로 1에서 4까지의 ordinal scale point로 구성하여 이 점수의 합이 객관적 생활상태를 나타내게 하였음.

다] 주관적 만족도 척도 : 객관적 생활상태에 나타난 8개 영역 각각에 있어서 주관적 만족정도를 5개 응답범주를 갖는 Likert Type 척도로 구성. 그리고 행복감과 즐거움을 묻는 문항을 각 1 문항씩 포함시켰음.

라] 객관적 생활상태의 척도구성

| 측정 영역 | 점 수 | | 1 | 2 | 3 | 4 |
|---------------|---------------|--|-----------------|------------|------------|------------|
| | 하위 영역 | 측 정 방 법 | 용 | 답 | 범 | 주 |
| 영 양 | 균형있는 식사 | ① 식단작성 여부 식단작성 유무 측정문항 4 | ④ | ③ | ② | ① |
| | 식사의 질 | ② 5군식품 섭취 여부 식사내용 측정문항 6 | 1 | 2 | 3 | 4 이상 |
| | 가족 영양 | ③ 노인(또는 어린이) 영양 배려 여부 배려정도 측정문항 4 | ④ | ③ | ② | ① |
| 보 건 · 위 생 | 기본 수면시간 확보 | ④ 주부 수면시간 수면시간 측정문항 4 | ④ | ③ | ② | ① |
| | 건강관리 정도 | ⑤ 아플때 처치방법 처치방법 측정문항 4 | ④ | ③ | ② | ① |
| | 가족건강 상태 | ⑥ 가족 외병일수 외병일수 측정문항 4 | ④ | ③ | ② | ① |
| | 위생상태 | ⑦ 변소상태 변소상태 측정문항 4 | ④ | ③ | ② | ① |
| | 위생관리 실태 | ⑧ 의복상태 의복상태 측정문항 4 | 1개 | 2개 | 3개 | 4개 |
| | 위생에의 관심정도 | ⑨ 기생충 구제여부 구제여부 측정문항 4 | ④ | ③ | ② | ① |
| 주 거 환 경 | 1인당 주거 면적 | ⑩ 1인당 방의 갯수 가족수, 방갯수 측정문항 | 1실 3인 이상 | 1실 2인 | 1실 1인 | 방수 <가족수 |
| | 주택 보온 정도 | ⑪ 겨울철 수면시 보온상태 보온상태 측정문항 4 | ④ | ③ | ② | ① |
| | 주거시설 | ⑫ 급수시설 급수시설 측정문항 4 ⑬ 주거시설 상태 시설종류 6 | ④ 0 | ③ 1~2 | ② 3~5 | ① 6개 |
| 가 사 노 동 집 안 일 | 작업조건 | ⑭ 부업시설 부업시설 측정문항 4 | ④ | ③ | ② | ① |
| | 가사편이용품 소유와 이용 | ⑮ 가정기기 소유와 이용 가정기기 8종 소유 및 이용상태 측정문항 4 | ④ | ③ | ② | ① |
| | 가사시설 | ⑯ 가사시설 보유정도 가사시설 7종 보유여부 측정문항 4 | ④ (0) | ③ (1~2) | ② (3~4) | ① (5이상) |
| 자 녀 교 육 | 자녀교육에의 관심 | ⑰ 자녀교육을 위한 대비 자녀가 모두 성장한 가정 : 자녀의 최종학력이 본인의사와 의 일치여부 자녀가 취학중인 가정 : 자녀의 학자금 준비여부 | 불일치 준비 안함 | - | - | 일치 준비중 |
| | 자녀교육의 자주성 | ⑱ 자녀 진학에 관한 본인의 의사존중 여부 의사존중 여부 측정문항 4 | ④ | ③ | ② | ① |
| | 자녀에 대한 관심 | ⑲ 자녀생활에의 관심여부 관심여부 측정문항 4 | ④ | ③ | ② | ① |
| 경 제 생 활 | 생활비 충족 정도 | ⑳ 생활비 충족 정도 충족정도 측정문항 4 | ④ | ③ | ② | ① |
| | 가계의 안정성 | ㉑ 부채유무와 부담정도 유부측정 : 유·무 부담정도 측정문항 : 4 | 유 ④ | 유 (3/2) | 유 ① | 무 |
| | | ㉒ 예비비 비축정도 비축정도 측정문항 4 | ④ | ③ | ② | ① |
| | 계획성 정도 | ㉓ 가계부 기입여부 기입여부 측정문항 4 | ④ | ③ | ② | ① |
| 여 가 생 활 | 여가 내용 | ㉔ 가족여가 종류 (주부중심) 종류별 성격 구분 측정문항 11 | 10, 11 | 6, 8 | 4, 5, 7, 9 | 1, 2, 3 |
| | 생활의 여유 | ㉕ 자유시간 정도 (주부중심) 정도 측정문항 4 | ④ | ③ | ② | ① |
| | 교양을 위한 노력 | ㉖ 교양을 위한 노력여부 (주부) 노력여부 측정문항 4 | ④ | ③ | ② | ① |
| 가 족 관 계 | 부모 자녀 관계 | ㉗ 가사에 관한 대화 대화정도 측정문항 4 | ④ | ③ | ② | ① |
| | | ㉘ 자녀일의 상담 상담정도 측정문항 4 | ④ | ③ | ② | ① |
| | 부부관계 | ㉙ 부부간 대화정도 대화정도 측정문항 4 | ④ | ③ | ② | ① |
| | 가족의 역할 분담 | ㉚ 적절한 역할분담 실행여부 실행여부 측정문항 4 | ④ | ③ | ② | ① |

test와 X²-test로 분석하였다.

IV.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 농가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 농가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지대, 농업형태, 주부의 나이 및 학력정도, 경지면적, 소득수준, 가족수 및 자녀수 등을 살펴 보았다(표 1).

먼저 지대별 구분을 보면 중간지대(논밭의 혼합지대)가 가장 많았고 도시 근교지대가 가장 적었으며, 논농사를 하는 농가와 그렇지 않은 농가가 거의 반반정도였다. 또한 조사대상 농가를 농업 경영 형태별로 살펴보면 제1종 겸업농가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전업농가, 제2종 겸업농가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다음에 주부의 나이를 살펴본 결과 평균 나이는 45.2세였다. 그리고 가족수는 평균 5.6명이었으며, 평균 자녀수는 3.3명, 그중 재학 중인 자녀는 평균 1.8명으로 나타났다.

주부의 교육정도를 보면 국졸이 가장 많았으며, 조사농가의 경지면적은 평균 3,673.7평으로 '86 전국 평균치인 3,360평에 비해 약간 넓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농가소득은 평균 497만3천원³⁾으로 '86년 전국 호당 평균 소득 599만5천원⁴⁾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으며, 이중 농업소득은 78.4%인 389만7천원⁵⁾, 농외소득은 21.6%인 107만6천원⁶⁾이었다. 그리고 가계비로 연간 400만원⁷⁾ 이상 지출하는 농가가 19.2%로 가장 많았고 연간 150만원⁸⁾ 미만을 지출하는 농가도 6.8%가 있는 것으로 나

표 1. 조사대상 농가의 일반적 특성

| 구 | 분 | 빈도 | % | 구 | 분 | 빈도 | % |
|------------|---------|-----|------|---------------------|------------|-------|------|
| 지 대 | 도 시 근 교 | 40 | 10.5 | 경 지 적 | ~1999평 | 73 | 19.2 |
| | 평 야 지 대 | 98 | 25.7 | | 2000~2999평 | 74 | 19.4 |
| | 중 간 지 대 | 144 | 37.8 | | 3000~3999평 | 84 | 22.0 |
| | 산 간 지 대 | 99 | 26.0 | | 4000~4999평 | 69 | 18.1 |
| 논농사 여 부 | 한 다 | 196 | 32.3 | | 5000평 이상 | 81 | 21.3 |
| | 안 한 다 | 185 | 48.6 | 농 가 소 득 | ~300만원 미만 | 78 | 20.5 |
| 농 업 형 태 | 전 업 농 | 123 | 32.3 | | 300~400만원 | 62 | 16.3 |
| | 제 1종겸업농 | 209 | 54.9 | | 400~500만원 | 75 | 19.7 |
| | 제 2종겸업농 | 49 | 12.8 | | 500~600만원 | 67 | 17.6 |
| 주 부 나 이 | 29세 이하 | 29 | 7.6 | | 600~800만원 | 57 | 14.9 |
| | 30~39세 | 88 | 23.1 | 800만원 이상 | 42 | 11.0 | |
| | 40~49세 | 156 | 40.9 | 연 간 가 계 비 지 출 | ~199만원 | 81 | 21.2 |
| | 50~59세 | 91 | 23.9 | | 200~249만원 | 63 | 16.6 |
| | 60세 이상 | 17 | 4.5 | | 250~299만원 | 72 | 18.9 |
| 교 육 수 준 | 문 맹 | 4 | 1.0 | | 300~349만원 | 50 | 13.1 |
| | 국 해 | 42 | 11.0 | | 350~399만원 | 42 | 11.0 |
| | 국 졸 | 245 | 64.3 | 400만원 이상 | 73 | 19.2 | |
| | 중 졸 | 68 | 17.9 | 계 | 381 | 100.0 | |
| | 고 졸 | 22 | 5.8 | | | | |

주 2) 다음의 농가정의에 부합되는 농가를 선정하였음.

가] 경지 10 a 이상을 가지고 직접 농사를 짓는 가구

나] 경지가 없더라도 대가축이 1마리 이상이거나 중가축 3마리 이상, 또는 소가축 40마리 이상, 가금 30마리 이상이거나 꿀벌 5봉 이상을 사육하는 축산농가

다] 배우자 직업이 농업인 농가의 주부

타났다.

2. 조사대상 가정의 질적 생활수준

1) 대상가정의 객관적 생활상태

조사대상 가정의 객관적 생활상태를 영역별 평균 점수로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여기에서 보면 식생활의 점수가 가장 낮으며, 다음으로 경제생활이 안정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81년의 최은숙 등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 것으로 여기서 특히 식생활 부분은 오랜 전통에 의해 형성되는 관계로 이의 개선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었고, 경제생활면에 대한 점수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이유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전체적으로 보아 식생활, 보건위생, 경제생활, 여가생활에서 평균 60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으며, 이와 상대적으로 주거환경, 가사노동, 자녀교육, 가족관계 면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주거환경, 가족관계, 여가생활 면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81년의 연구와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1) 식생활(영양)

먼저 식단의 계획 및 실행여부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 가정의 50.4%가 '되는 대로 먹는다'에, 29.9%가 '아침은 전날밤에 계획하고 점심, 저녁은 그날 아침에 생각한다'에 답하였으며, '하루전에 미리 생각해 본다'는 겨우 19.7%에 불과하였다.

또한 1일 식사 중 당질군을 제외한 4군 식품군을

끌고루 섭취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에 대해서는 '매일 4가지군을 섭취한다'가 30.2%, '3가지군을 섭취한다'가 39.4%였으며, '2가지군 이하를 섭취하고 있다'는 30.4%로 나타났다.

어린이나 노인의 영양관리를 위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노력 없이 다른 가족과 똑같이 먹도록 하고 있다'가 66.9%나 되었으며, '방법을 몰라서'가 9.2%, '항상 또는 가끔 배려를 한다'는 23.9%였다.

(2) 보건위생(건강)

보건위생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보건면, 위생면을 합하여 모두 6개 문항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먼저 주부가 일이 바쁜 철에 어느정도 수면을 취하는가에 대해서는 '6~7시간 미만'이 39.9%로 가장 많았고, '6시간 미만'이 32.5%, 그리고 '7~8시간 미만'이 21.8%로 나타나 적정수면시간이라고 보는 8시간에 못 미치는 수면을 취하는 주부가 94.2%나 되어 주부의 건강관리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가족 중 아픈사람이 생길 경우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견딜만큼 견디다 못견딜 정도가 되어야 병원이나 약국에 가는 경우'가 22.3%나 되었으며, '몇일 견디 보다가 약국에 가거나 민간요법으로 치료해 본다'는 24.7%, '몇일 견디 보다가 병원에 가거나 이상이 있을 때 즉시 약국에 간다'가 39.6%였고, '즉시 병원에 간다'는 13.4%에 불과하였다.

또한 조사대상 가정의 가족원이 지난 1년동안

표 2. 객관적 생활상태의 영역별 평균점수

| 영역 | 식생활 | 보건위생 | 주거환경 | 가사노동 | 교육 | 경제생활 | 여가 | 가족관계 |
|----|------|------|------|------|------|------|------|------|
| 점수 | 52.1 | 58.9 | 79.1 | 78.3 | 70.3 | 55.4 | 57.5 | 77.0 |

*100점 만점 환산점수임.

주 3, 4, 5, 6, 7, 8) 이것을 다시 '85 불변가격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농가소득 ³⁾ | 전국평균 ⁴⁾ | 농업소득 ⁵⁾ | 농외소득 ⁶⁾ | 400만원 ⁷⁾ | 150만원 ⁸⁾ |
|--|--------------------|--------------------|--------------------|---------------------|---------------------|
| 500만3천원 | 603만1천원 | 392만원 | 108만2천원 | 402만4천원 | 150만9천원 |
| 참고로 '89년도 전국평균치를 '85년도 불변가격으로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 | | | | |
| 구분 | 농가소득 | 농업소득 | 농외소득 | 가계비 | |
| '89 | 943만7천원 | 561만6천원 | 382만1천원 | 706만5천원 | |
| '85불변 | 795만7천원 | 473만5천원 | 322만1천원 | 595만7천원 | |

몇일이나 병으로 누워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없었다'가 31.5%, '1~10일'이 43.3%, '10~20일'은 11.3%였으며, '20일 이상'이 되는 경우도 13.9%나 되고 있었다.

그리고 조사가정의 변소상태에 대해서는 '개량 변소(문, 뚜껑은 필수)'가 20.2%, '문과 뚜껑만 있는 경우'가 15.5%, '문만 있다' 56.7%였으며, '문도 뚜껑도 없는 경우'가 7.6%였다.

가족원의 의복상태를 알기 위해 속옷, 농약방제복, 침구, 작업복의 소유에 대한 질문에서 4가지 중 '모두 있다'가 21.8%, '3가지 있다' 27.8%, '2가지 있다' 29.7%, '한가지만 있거나 하나도 없다'가 20.7%로 나타났다.

기생충 구제정도에 대해서는 '거의 안하고 있다'가 45.7%나 되었고, '1년에 1~2회 하는 경우'는 48.3%였으며, '정기적으로 또는 1년에 3회 이상 한다'는 6.0%에 불과하였다.

(3) 주거환경면

먼저 농가 거주인 1인당 방이 몇개 정도인지에 대해 알아본 결과 '1인당 1개정도'가 55.9%로 가장 많았고 '방 하나에 2명이상 사용'은 25.5%였는데, '사람수보다 방의 갯수가 더 많은 경우'도 18.6%나 되고 있었다.

그리고 겨울에 주택의 보온정도가 어느정도 인지 알아본 결과 '언제나 따뜻하게 잘 수 있다'가 58.5%로 가장 많았고, '이불속은 따뜻하나 코, 얼굴 등이 시리다'가 33.1%였으며, '두껍게 덮어야 깨지 않고 잘 수 있다'와 '두껍게 덮어도 새벽녘에 추워서 깨는 일이 많다'는 각각 4.2%여서 보온상태는 비교적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급수시설도 비교적 좋아서 '상수도(자가수도)를 사용한다'가 86.4%로 가장 많았고, '옥내에 펌프 또는 우물'은 9.9%였으며, '옥외 공동수도'는 3.7%였다.

또한 가정에 목욕탕, 하수도, 쓰레기 처리장, 꽃밭, 연탄보일러 중 '모두 있다'고 답한 경우가 6.3%, '3가지 이상 있다'는 40.7%였으며, '1~2가지는 있다'가 47%로 가장 많았는데, '하나도 없는 경우'도 6%나 되어 주거환경시설은 미비한

편이었다.

(4) 가사노동(작업) 조건

가사노동을 위한 조건에 대해 알아본 결과 '입식부엌(수도, 하수도, 조리대가 부엌내에 있다)이다'가 50.1%로 가장 많았고, '3가지 중 2가지가 있다' 19.7%, '3가지 중 1가지는 있다'가 13.7%였으며, '하나도 없다'도 16.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기구 소유 및 이용에 대해 세탁기, 냉장고, 전기밥솥, 전기보온밥솥, 석유콘로(또는 가스레인지), 재봉틀, 부엌용 저울, 전기믹서 등 8가지 중 '4~5가지 이상 소유하며, 모두 잘 사용하고 있다'가 64.6%로 가장 많았으며, '2~3가지 가지고 있으며 대개 잘 사용'이 27.0%로 나타났는데, '대개 가지고 있으나 잘 사용하지 않고 있다'와 '없는 것이 많고 있어도 잘 사용하지 않는다'도 8.4%였다.

그리고 가정내 시설면에서는 부엌내의 불박이장, 방안의 수납장소, 가사용품의 보관장소, 빨래터, 가사기구 정리대, 식탁, 개수대의 조명(또는 채광창) 등 7가지 중 '3~4가지 있다'가 48.0%로 가장 많았으며, '5가지 이상 있다'고 답한 경우는 20.2%, '1가지 이상 있다'가 25.2%, '하나도 없다'는 6.6%였다.

(5) 자녀교육

먼저 조사대상 농가의 자녀교육 실태를 알기 위한 질문에서는 '자녀들이 학교를 다 마친 경우'와 '어려서 아직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없는 경우'가 각각 10.8%였으며, '모두 학교에 다니고 있다'와 '학교를 마친 자녀와 현재 다니는 자녀가 함께 있는 경우'가 각각 39.1%와 39.4%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이미 자녀가 학교를 다 마친 41호를 대상으로 최종학력이 본인의 의사와 어느정도 일치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본 결과 '모든 자녀가 일치된 경우'가 34.2%, '자녀 중 일치된 자녀가 비일치된 자녀보다 많은 경우'가 2.4%인 반면, '일치된 자녀 보다 비일치된 자녀가 더 많은 경우'는 24.4%였으며, '전혀 일치되지 않은 경우'도 39.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본인의 의사와

일치가 안된 경우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본 결과 '집에 돈이 없어서'가 가장 많았고, '상급학교에 진학할만한 실력이 못 되어서'와 '집에서 그 정도면 됐다고 중단하기를 희망 하여서'의 순이었다.

그리고 '자녀가 학교를 다 마쳐버린 집단을 제외한 나머지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학자금 준비 여부에 대해 알아본 결과 '준비하고 있다'가 42.6%인 반면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57.4%로 더 많은 가정에서 학자금을 미리 준비하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진학에 관한 한 자녀의 의견을 어느정도 존중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무리를 해서라도 끝가지 뒷받침 하겠다'고 답한 사람이 53.5%로 가장 많았고, '본인이 다니고 싶어해도 그때 집안 형편을 봐서 뒷받침 하겠다'가 40.7%였다.

또한 자녀들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 알아본 결과 '잘못할 때에만 지도한다'가 53.8%로 가장 많았고, '매사에 일일이 돌보아 준다'가 32.0%였는데, '그냥 내버려 둔다'도 5.0%가 있었다.

(6) 경제생활면

먼저 작년엔 번 돈이 생활을 하기에 어느정도였는지에 대해 알아본 결과 '꽤 여유가 있었거나 약간의 저금을 할 수 있었던 정도'가 35.7%인 반면, '생활비에 겨우 맞았다'는 29.4%, '오히려 모자라 저금에서 찾거나 남에게서 빌렸다'가 34.9%로 나타났다.

또 빚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전혀 없다'가 31.5%였고, '있지만 곧 갚을 수 있다'는 9.9%, '당장은 아니지만 빠른 시일내에 갚을 수가 있다'가 27.6%인 반면 '갚을 길이 막막한 경우'는 31.0%나 되고 있었다. 빚이 있다고 답한 경우 빚을 지게 된 이유를 보면 '농사비용' 때문이 28.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학자금' 24.1%, '농지나 농기구 구입 등의 재산증식' 때문이 23.0%였으며, 그 외에 생활비, 주택자금(수선 또는 신축 등), 집안의례, 병치료, 채무상환 및 이자지급 등의 순으로 그 이유를 들고 있었다.

그리고 예기치 않았던 일에 대비하여 얼마나 대비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가 50.7%로 가장 많았고, '가계비의 1개월분 정도' 21.5%, '가계비의 2개월분 정도' 14.4%였으며, '가계비의 3개월분 정도'라고 답한 경우는 13.4%에 불과하였다.

가계부 기입에 대한 질문에서는 '기입하지 않고 있다'와 '매일 기입하고 있다'에의 응답자가 각각 38.6%와 32.3%로 거의 비슷한 정도였으며, '금전출납부 형식으로' 또는 '가끔 기입한다'가 29.1%로 나타났다.

(7) 여가생활면

우선 한가할 때 주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 본 결과 응답자의 22.0%가 'TV, 라디오 등을 보며 지낸다'고 답하여 가장 많았고, '친구, 이웃 또는 친척방문'이 17.9%, '별로 하는 일이 없다'가 15.8%로 나타났으며, '낮잠', '부녀회 또는 구락부 활동', '종교활동' 등에 응답자의 5% 이상이 답하고 있었다.

그리고 주부가 1일 중 자유로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대개 어느정도나 되는가 하는 질문에 '1~2시간 미만'이 31.0%로 가장 많았고, '0~1시간 미만'이 29.1%, '2~3시간 미만' 26.0%였으며, '3시간 이상'은 13.9%로 나타났다.

또 주부가 교양을 쌓기 위해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신문을 읽는다", "TV의 교양프로그램을 본다", "잡지 따위를 정기적으로 구독하고 있다" 등 3가지 중 '2가지 이상을 거의 매일 또는 정기적으로 하는' 경우는 4.7%에 불과 하였으며, '1가지 정도는 정기적으로 또는 가끔씩은 하도록 하고 있다'가 52.0%였고, '시간이 없거나 관심이 없는' 경우가 무려 43.3%나 되고 있었다.

(8) 가족관계면

부모가 자녀에게 상담을 구하는 정도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항상 자녀를 믿고 상의한다'가 40.4%, '가끔 상의한다'가 37.8%였는데, '자녀와 상의를 안하는' 경우도 21.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가 부모에게 상담을 구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학업, 진학, 곤란한 일, 친구관계 따위의 일 등은 상담한다'가 46.5%, '학업, 진학 관계만 상담한다'가 27.8%였으며, '부모와는 안 한다' 또는 '친구나 다른 사람과 한다'도 25.7%나 되고 있었다.

부부간의 대화에 대해서는 '영농, 가족생활의 일 모두 서로 의논하고 같이 결정하여 실행한다'가 48.3%, '대체로 의논은 하지만 최종결정은 남편이 한다' 32.5%, '때에 따라서'가 16.8%였으며, '서로 의논 안하는 경우'도 2.4%가 있었다.

그리고 가족간의 역할분담 정도에 대해서는 '가족 모두가 잘 되고 있다'가 43.8%인 반면, '잘 안되고 있다'는 40.4%나 되었으며, '어른들과 큰 아이들만 하고 있다'는 15.8%로 나타났다.

2) 대상가정의 주관적 만족도

영역별 생활상태에 대한 만족정도는 다음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여기서 평균 점수를 영역별로 비교해 본 결과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이 보건위생, 자녀교육의 순이었으며,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이 결과는 '81년의 연구결과와는 상이한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⁹⁾.

그리고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질문에서는 표 4에서와 같이 '보통'이 56.7%로 가장 많았고, '만족한다'가 34.9%, '불만이다'가 8.4%로 대체로 자신의 생활에 만족하는 편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복한가'라는 질문에서는 행복한 편이 42.6%, 보통이 41.8%, 불행한 편이 13.6%로 나타났는데, 이와는 달리 '즐거운가'라는 질문에서는 즐거운 편이 26.7%인 반면 즐겁지 않은 편이 41.5%나 되고 있었다.

3) 객관적 생활상태와 주관적 만족도와의 관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농촌가정의 질적생활은 객관적 생활상태와 주관적 만족도 면에서 전반적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이 둘을 그림으로 함께 표시해 본 결과 다음 그림 1과 같았다. 여기에서 보면 식생활, 보건위생 그리고 경제생활면은 주관적 만족도가 실제보다 높았고, 주거환경, 가사노동, 여가생활, 가족관계 면은 객관적 생활상태가 주관적 만족도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주거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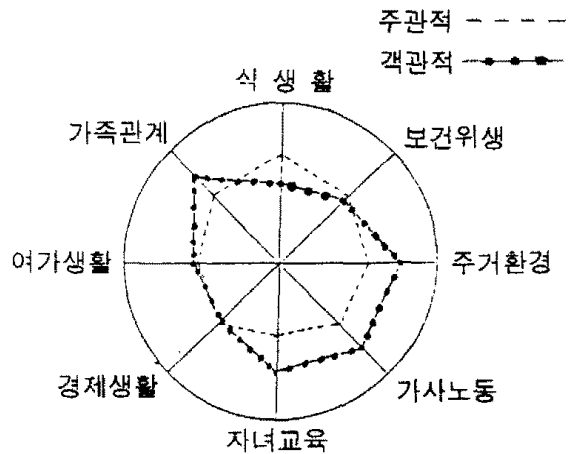


그림 1. 객관적 생활상태와 주관적 만족도 간의 차이.

표 3. 영역별 생활상태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

| 영역 | 식생활 | 보건위생 | 주거환경 | 가사노동 | 교육 | 경제생활 | 여가 | 가족관계 |
|----|------|------|------|------|------|------|------|------|
| 점수 | 59.8 | 61.8 | 59.2 | 57.8 | 60.0 | 56.4 | 53.4 | 63.0 |

*100점 만점 환산점수임.

표 4.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도

| 구분 | 매우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 | 매우불만 | 계 |
|----|------|------|------|-----|------|-------|
| 빈도 | 7 | 126 | 216 | 30 | 2 | 381 |
| % | 1.8 | 33.1 | 56.7 | 7.9 | 0.5 | 100.0 |

주 9) 최은숙 등의 연구결과에서는 작업조건(가사노동), 여가생활, 주거환경의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으며, 경제적 안정성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가사노동 면에서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객관적 생활상태의 총점과 주관적 만족도 총점과의 관계를 상관계수로 알아 본 결과 0.583 이었으며, 이를 다시 F-test해 본 결과 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객관적 생활상태의 점수가 높은 가정이 주관적 만족도 점수가 높다는 것으로 이들은 서로 관계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객관적 생활상태의 각 요인과 주관적 만족도의 총점과의 상관관계를 역시 상관계수와 F-test로 살펴 보았는데(표 5), 여기서 보면 가족의 주관적 만족도 정도는 객관적 생활상태의 모든 요인과 1% 수준에서 의미있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특히 식생활, 가사노동, 가족관계와의 상관관계가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시 객관적 생활상태의 총점과 주관적 만족도의 각 문항과의 관계를 살펴 보았는데(표 6), 여기서도 역시 객관적 생활상태가 좋은 가정일수록 모든 영역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고, 특히 객관적 생활상태가 좋을수록 경제생활, 보건위생, 주거환경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가 높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끝으로 객관적 생활상태의 각 요인과 주관적 만족도의 각 문항과의 관계를 살펴 보고 이를 다시 F-test해 본 결과(표 7), 여기서도 객관적 생활상태가 좋을수록 그 영역에 대한 만족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경제생활, 보건위생, 여가생활이 그러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객관적 생활상태와 주관적 만족도와의 사이에는 비교적 높은 정적 상호상관성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생활상태와 주관적 만족도와의 합

으로 생활의 질을 측정하는 것은 다음의 연구과제로 남기고, 여기서는 다시 조사대상 가구가 속한 몇가지 배경요인(지대, 논농사 여부, 도별, 농업형태별)과 객관적 생활상태에 대한 점수 및 주관적 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를 X²-test로 검증해 보았다. 그 결과 객관적 생활상태는 응답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지대별로 차이가 있었지만(표 8), 주관적 만족도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논농사가 주소득원인 가정과 그렇지 않은 농가에

표 5. 객관적 생활상태의 각 요인과 주관적 만족도의 총점과의 상관

| 요 인 | 상관계수 | 요 인 | 상관계수 |
|------|---------|------|---------|
| 식 생활 | 0.417** | 자녀교육 | 0.295** |
| 보건위생 | 0.402** | 경제생활 | 0.358** |
| 주거환경 | 0.376** | 여가생활 | 0.280** |
| 가사노동 | 0.410** | 가족관계 | 0.408** |

**P<.01

표 6. 객관적 생활상태의 총점과 주관적 만족도의 각 문항과의 상관

| 요 인 | 상관계수 | 요 인 | 상관계수 |
|------|---------|------|---------|
| 식 생활 | 0.391** | 자녀교육 | 0.276** |
| 보건위생 | 0.441** | 경제생활 | 0.472** |
| 주거환경 | 0.395** | 여가생활 | 0.240** |
| 가사노동 | 0.388** | 가족관계 | 0.343** |

**P<.01

표 7. 객관적 생활상태의 각 요인과 주관적 만족도의 각 문항과의 상관

| 요 인 | 상관계수 | 요 인 | 상관계수 |
|------|---------|------|---------|
| 식 생활 | 0.346** | 자녀교육 | 0.214** |
| 보건위생 | 0.380** | 경제생활 | 0.465** |
| 주거환경 | 0.315** | 여가생활 | 0.364** |
| 가사노동 | 0.320** | 가족관계 | 0.333** |

**P<.01

표 8. 지대별로 본 객관적 생활상태

| 지대구분 | N(%) | | | | | 계 |
|------|-----------|-----------|-----------|----------|---------|------------|
| | 70점 이하 | 71~80 | 81~90 | 91~100 | 101점 이상 | |
| 도시근교 | 3(0.8) | 6(1.6) | 13(3.4) | 13(3.4) | 5(1.3) | 40(10.5) |
| 평야지대 | 29(7.6) | 30(7.9) | 21(5.5) | 12(3.1) | 6(1.6) | 98(25.7) |
| 중간지대 | 46(12.1) | 35(9.2) | 41(10.8) | 15(3.9) | 7(1.8) | 144(37.8) |
| 산간지대 | 23(6.0) | 42(11.0) | 28(7.4) | 4(1.1) | 2(0.5) | 99(26.0) |
| 계 | 101(26.5) | 113(29.7) | 103(27.1) | 44(11.5) | 20(5.2) | 381(100.0) |

*120점 만점임(X²=45.7104** df=12 P<.01).

표 9. 농농사 여부별로 본 객관적 생활상태

| 농농사 구분 | N(%) | | | | | 계 |
|--------|-----------|-----------|-----------|----------|---------|------------|
| | 70점 이하 | 71~80 | 81~90 | 91~100 | 101점 이상 | |
| 농 농 사 | 53(13.9) | 55(14.4) | 43(11.3) | 27(7.1) | 18(4.7) | 196(51.4) |
| 농농사의외 | 48(12.6) | 58(15.2) | 60(15.8) | 17(4.5) | 2(0.5) | 185(48.6) |
| 계 | 101(26.5) | 113(29.7) | 103(27.1) | 44(11.5) | 20(2.5) | 381(100.0) |

*120점 만점임($X^2=17.9031$ ** $df=4$ $P<.01$).

대한 비교에서는 객관적 생활상태의 점수에서는 차이가 있었지만(표 9), 주관적 만족도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배경요인에 따라서는 생활의 질 점수에서 유의차를 보이지 않고 있다.

V. 결 론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농촌가정의 질적 생활은 객관적 생활상태와 주관적 만족도 면에서 전반적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객관적 생활상태에서는 식생활, 보건위생, 경제생활 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건강생활과 직결되는 식생활 분야와 보건위생 면에서는 농가주민들의 의식을 높여주는 것이 필요하며, 경제생활 면에 대한 문제는 단순한 것이 아니므로 근본적인 대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와는 달리 주관적 만족도 수준은 여가생활 면에서 낮았는데, 이는 최은숙 등의 연구결과와 비교해서 여가생활과 가사노동 면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그동안 농가주부들의 노동부담이 늘어난 반면, 노동을 위한 제반여건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그리하여 앞으로는 '농촌생활의 질 향상' 또는 '보다 나은 생활' '보다 좋은 생활'을 위해서 농촌주민에게 인생의 가치와 가정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농촌생활에서 보람을 찾고, 하나의 투철한 직업인으로서, 또한 가정과 지역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 농촌자녀의 건전한 육성능력을 배양시켜 농촌을 지켜갈 후계자로서, 지역사회개발을 이끌어 갈 주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 뿐 아니라 가정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불리한 작업환경 속에서도 건강을 지켜갈 수 있도록 식생활을 개선하고, 철저한 보건위생 관념과 여가시간의 활용능력을 함양시켜야 할 것이며, 의식주 생활이 가정생활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지식, 태도, 기술을 배양시켜 자발적으로 자신의 생활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외에도 농촌주민은 자신이 사는 지역사회가 곧 자신의 일터이므로 지역사회 활동에 대한 이해에 관심을 증대시키고, 영농기술과 농기계 기술의 배양도 필요한 일이라고 보여진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객관적 생활상태와 주관적 만족도를 '생활의 질'이라는 개념을 측정하는 척도로 이용할 수 있음이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났으나 보다 정확하고 유용한 척도개발을 위해 그에 대한 결론은 차기 조사연구에서 내리기로 한다.

참고문헌

- 1) 광인숙(1986). 생활의 질 측정을 위한 주거환경 지표 선정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4(2), 161-182.
- 2) 김경동(1978). 현대의 사회학, 서울:박영사.
- 3) 김경동(1979). 발전의 사회학, 서울:문학과 지성사.
- 4) 김동일 외(1982). 한국 농촌주민의 삶의 질-사회지표 구성을 위한 종합적 접근. 연구총서 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5) 김해동(1976). 한국농촌생활지수연구: 새마을운동의 임팩트. 행정논총 14(2), 134-170.
- 6) 이기영(1984). 주부가 인지한 생활의 질에 관한

- 연구 - 인과모형의 한시도. 대한가정학회지 22 (3), 111-127.
- 7) 이기영(1984). 주부가 인지한 생활의 질에 관한 인간생태학적 접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 35-59.
- 8) 문숙재·소연경(1983). 가정생활의 질 측정을 위한 예비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 43-53.
- 9) 문숙재·정은숙(1985). 도시가정생활의 질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3(3), 149-167.
- 10) 이정수·고경애(1985). 가족의 가사노동시간과 생활의 질 인식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23 (2), 67-90.
- 11) 최경구(1978). 한국 농촌주민의 주관적 복지에 관한 연구. 고대 석사학위논문.
- 12) 최은숙(1981). 농가질적생활 진단을 위한 지표의 책정·조사연구. 농촌진흥청.
- 13) 한경미·황덕순(1990). 주부의 여가시간과 생활의 질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 (1), 69-82.
- 14) 한경혜(1980). 농가의 생활의 질 측정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5) 현오석(1976). 생활의 질의 측정에 관한 연구. 행정논총 14(2), 326-333.
- 16) 山本松代(1974). 生活設計の 理論と 實際. 光生館.
- 17) Cantrill, A.H.(1965). The pattern of human concerns. New Bruswick, N.J. : Rutgers Univ. Press.
- 18) Cantrill, A.H. & C.W. Rolls, Jr.(1973). Hopes & fears of the American people in EPA-The quality of life concept. Washington D.C. :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19) Ben Chieh Liu(1975). Quality of Life : concept, measure and results. *The American J. of Economics & Sociology* 34(1), 1-13.
- 20)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1983). The quality of life concept. Washington : EPA.
- 21) Erik Allardt(1973). A welfare model for selecting indicators of national dev. *Policy Science* 4, 63-74.
- 22) Harland, D.(1972). Health & welfare indicators : Current Canadian research, Ottawa, ont. : Social & Human Analysis Branch, dept. of Regional Economic Expansion.
- 23) In-Keun Wang(1990). Problems and constrains in relation to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in rural areas-Study meeting on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in rural areas". Korea Productivity Center.
- 24) James, R.D.(1972). Measuring the quality of life. *The Wall Street Journal* 18(May), 18.
- 25) Jan Drewnowski(1970). Studies in the measurement of levels of living & welfare, UNRISD Report 70(3) : Geneva.
- 26) Hornback, K. & Shaw, R.W.(1972). Toward a quantitative measure of the quality of life-memo. Washington D.C. : Homer Hoyt Institute.
- 27) Lee, A., Coleman(1975). Quality of life ; How community leaders & ordinary residents assess various aspects of life in four Kentucky mountain countries. Lexington : Univ. of Kentucky, Dept. of Sociology.
- 28) Roakeach, M.(1973). The nature of human values. N.Y. : Free Press.
- 29) Norman, C., Dalkey(1968). Quality of life. Rand Coperation Paper, 3085.
- 30) Reeder, R.L.(1971). Seeking a quality of life yardstick. *J. of Extension*(Fall), 11-17.
- 31) Livingston, R. The quality of life concept ; A potential new tool for decision maker. Washington D.C. :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32) Sharon Wallace(1974). Quality of life. *J. of Home Economics*(Nov.), 6-9.